



베오그라드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는 지난 주까지 41도 이상 올라갔고, 어제 비가 한번 시원하게 오더니 갑자기 초가을 날씨처럼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빵을 사러가다가 윗층에 사는 이웃, 자카 할머니를 만났는데, 날씨가 이상하다며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말하더라구요. 올해 여기 여름은 보통 일주일정도 덥고 일주일 시원하고 이런데, 이번주 들어서서는 완전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선풍기도 없이 아이들과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요 며칠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자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말에 비자신청을 다시하게 됩니다. 저희는 당연히 1년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니 힘내라 센터가 아직 프로메트(재정지출/수입 순환)의 내용이 많지 않고 이 나라 정부의 기준에 못 미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6개월을 운영해 갈지 생각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6개월이든 1년이든 비자허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더 나은 환경과 길을 여실 것이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유고슬라비아 선교를 위해, 힘내라 센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힘내라 센터, 첫 번째 프로젝트! 힘내라 태권도 교실! 태권도 수업을 원하는 유치원들이 더 모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태권도의 본고장인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 가르치고 또한 세르비아 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잘 어필되어서 현재 카미착 유치원에서는 출발이 잘 되었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토대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서 <힘내라 태권도 교실>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 수업을 원하는 유치원들이 모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와 내년까지 <힘내라 태권도 교실>을 잘 정착시키고 이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영혼들을 만날 수 있기를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내라 센터 장소 임대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110만원/ 임대료(석달치)660유로, 약86만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BLOK 61)에서 1키로 떨어진 곳(BLOK 64)에 괜찮은 로컬(임대 장소)을 봐 뒀습니다. 공고가 8월 휴가철이 끝나고 9월초쯤에는 뜰 것 같다고 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공고가 뜨더라도 그 장소가 저희에게 주어지는게 아니라 서류접수도 하고 보증금과 석달치 임대료를 모두 넣고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 상황을 들으시면서 뭐이리 복잡하고 어렵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자신들 정부의 시스템에 불만이 많고 일하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는 더 어렵고 힘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을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씩, 한 걸음씩,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보람이 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삶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자는 잘 나왔는지 궁금하셨을 것인데 이렇게 늦게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가을쯤에 곧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동역하여 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_ 시편기편14절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는 이 곳, 제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항상 아버지, 당신의 얼굴을 바랍니다.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그들과 영적인 소통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매일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날마다 조금씩 이 땅을, 이 민족을 알아가며,
 소망을 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께 드릴 것이 없고
 날마다 실패하는 저의 연약함 앞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더욱 더욱 찬송하고
 사랑합니다.

2017년 여름
 노비 베오그라드에서 이명호,박조이,하은,래나,나라 드림

유고슬라비아권 선교- 힘내라 센터를 위해 동참해 주실 분은

후원계좌 국민 804202-01-326390 대구 042-08-256079-002 (예금주:이명호)

TEL: +381-064-9277-488(485)/ 070-4671-1475(인터넷폰_LG플러스)

EMAIL: yugohanahome@gmail.com



힘내라 태권도 교실_노란씨 심사 2016.6.30.카미착 이 두루가리 유치원

